許憲等六人事件 明日에公判開廷

光州學生事件을機會로 민중대회열고시위하려든사건

出廷할辯護士十六人

재작년 十一월 광주학생사건으로 말미암어 전조선 각학교 학생들의 동요가 잇서서 민경에는 조선민중대회를열고 일대시위운동을 하려든 민중대회사건의 피고 허헌변호사등 여섯사람에 대한 제一회 공판은 긔보와가티 六일 오전十시 경성지방법원 제四호법정에서 열게되엇다 당당법관은 금천(金川)재판장과 이동(伊藤)검사이며 변호사는 긔보와가티 경성시내와 지방각지에서 전후 十六명이나 출정하게되엇스며 출정할 피고의 씨명은 알에와갓다

▲許憲[illegible]▲李灌鎔[illegible]▲洪命熹[illegible]▲李源赫[illegible]▲趙炳玉[illegible]▲金東駿‖武森(三八)

計劃綻露로 未然에被捉

이상과가티 민중대회를 준비한다는 사건을 미리안경과도경찰부에서는 시내각서와 련락하야 十二월 十三일아츰 돌연대활동을 개시하야 허헌이하十여명을 검거하고 十三일밤에는김무삼이 조선극장에서 체포되엇다

이와가티 검거된 피고들은그 이듬해인소화五년一월에 송국되어 동년九월에 예심이종결되엇는데 범二년만에 공판이개정되는 셈이다

으로되엇다

그런데 이보안법위반에 대하야 지난대정八년六월九일의 만세사건의례를보면 그와가튼 사건의내용을 가졋다하더라드

檄文을撒布

허헌의 집에 모혀루차 협의

◇事件內容의大概

標語를作成

사건은 재작년十二월중 전조선각학생들이한참동요되어속속검거를당하든때에 피고인 허헌외 그외소속되어잇는 신간회간부인 전긔피고들과협의한후 당국이학생들을 속속검거하는데 대하야 민중대회를열고 이에항쟁코저하얏다

그리하야 동월十○일광화문통 허헌의집에모혀

一、光州事件의正體를暴露할것
一、拘禁한學生을 無條件으로 釋放할것
一、警察의學校蹂躪을排擊할것
一、○○한警察政治를抗爭할것

등의 취지로공개연설회와 시위운동을하려고 계획하고 그중 김무삼은 동월十三일 우와가튼 표어의 결의문을작성하야 전각신간지회에 발송하고 그날밤시내조선극장에서 일반관중에게 배포햇든것이다

領井靑年會 夜學을開設

【개성】 개풍군흥교면(興敎面)조만덕(領井)씨등의 발긔로 지난四일동지에서 영정청년회(領井靑年會)를 창립하고 첫사업으로 동회관에서 남녀아동을 수용하야 개설한바 아동이 벌서 백여명에달하야 매우성황이라한다

訴名은保安法 注目되는審理

괴소하는죄명에대하야

意見이區區不一

六일공판이 개정되는 허헌사건은 그죄명에대하야 가든사법관으로서도 종래여러가지로 견해가달러서 세간의주목을 쓰으는일이잇섯다

즉 경찰의송국한죄명은 보안법위반이엇섯는데 검사국에서는 제령제七호위반으로 긔소하야 경찰이부친죄명을 취소햇다 그러고 예심판사는 또다시보안법위반으로 결정하야 경찰의죄명을회복하고 검사가부친 죄명을취소햇다 그리하야 이번공판에 맛는죄명은 결국 보안법위반

一地方의評議를 [illegible]度에 [illegible]치안흘뿐는 處罰치아니함 이라는것이잇서 이사건의 공판이 상치유죄? 무죄? 어떠한것으로결정이될는지매우주목된다 고한다

合格通知書 僞造해發表

【동경四일발전통】 제一고등학교(第一高等學校) 입학시험 합격발표는 오는 八일에 할작정이라는데 어떠한 자가 인쇄물로 수험자에게 통지한괴사건이 잇섯다 동통지서의 내용을보면 一고의제복정모를 착용하고 四월八일오전十시에 등교하라하얏다 한다

一九三六年 日米戰을預言

로혁명과 일본지진예언한

露西亞女預言者

【상해특신】 최근『로시아』녀예언자(女預言者)『살라하』녀사(西伯利亞)에서 생장하야 옛날로가 당시에 도착하야 놀랄만한 예언을 발표하야 일반의 충동을 이르켯다

그내용은 一천九백三十六년도에는 일본과 미국사이에 큰 전쟁이 발생되어 두나라의 인명과 재산이 형언할수업게 큰 손실을 보게될것이며 그때에 영국의 조정(調停)으로 피차강화(講和)가 되리라하고 또명년에는 중국과 로시아의 대전쟁이 잇게될터이며 그전쟁의 결과로 중국의 재정은 크게 파산을 당하야 중국돈은 독일(獨逸)의 마크가티 폭락되고 렬강(列强)이 군대가 중국을 분할(分割)하게되리라하얏다는 금년 五十 [illegible] 『로시아』제국시대 부터 예언자로 [illegible] 잇섯는데 대혁명을 예언하얏고 또일본의 대지진(大地震)을 예언하얏다한다『쏘베트』정부는 녀사가 미신선전(迷信宣傳)을 한다 하야 일시체포구금하얏다가 국외(國外)로 방축(放逐)하얏다

吉野町火災

금五일오전二시二十七분 시내길야정(吉野町)一정목九번지 저방차태랑(林方次太郞)의 집에서발화하야 一호一동을 전소하고 손해는 六백五十원가량 이라한다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오

懲戒制度設置에 積極的活動

朝鮮辯護士協會總會

작일개최하고 역원개선한

조선변호사협회(朝鮮辯護士協會)에서는 四일오후 다섯시 명월관본점에 정긔총회를열고 알에와가튼 사건을 결의하얏다 [illegible] 변명할여지를 두어달나는 것인데 동회에서는 종래부터적립해두엇든 적립금까지 쓰러내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기로 되엇다고한다

▲役員改選‖總理事李仁、理事鄭求瑛、李鍾[illegible]、權承烈、李昌輝、金東炫(釜山)李熙迪(新義州)孫致殷(大邱)吳宗洙(平壤)評議員朴勝彬外二十九名

▲決議事項‖辯護士懲戒制度設置要求의件

결치에대하야는 종래 총독의전단으로하든것을 일본과가티 재판제도로 고처 피고변호사로하

朝鮮人辯護士 定期總會開催

경성조선인변호사회(京城朝鮮人辯護士會)에서는 四일오후五시시내명월관에서정긔총회를 열고 알에와가티 역원을개선햇다

▲會長劉文煥 副會長鄭求瑛 常議員李仁 外六人

◇寫眞說明‖(右側)洪命熹、趙炳玉、李灌鎔(左側)許憲、金東駿、李源赫

官吏、敎員減俸案 今秋부터畢竟實行?

재작년에 실시하랴다 못한것

政府는相當한決心

정부에서는 오는九월 앞에와가튼 리유로서 一반관리의 봉급을 감액할 준비를 하는중이라는데 이 문제는 재작년 가을에도 잇서서 一반 관리들의 격렬한 반대로 문제를 철회한사건도 잇섯든것임으로 과연 단행될던지 매우 주목된다

一、當時(再昨年)와現在는世情이다른일
一、五年度歲入激減의當時
一、一般俸給生活者에比하야官吏는高率이것
一、小中學校職員들은俗附의形式으로벌서減額햇슴에不拘하고其他官吏는減俸치안는것은反社會的이며思想上惡影響을及함

이상은 지난번 문부성(文部省)에 대하야 교원감봉안을 제출햇는데 내무성에서는 머지안허 관리전체에대하야 감봉을 하겟스니 구태여교원들만 따로할필요가 업다고한것을보아 이것을결행코저하는것이 더욱 명백하며 또는 금년도 예산 배당은 인건비(人件費)에 한하야 오는九월까지 六개월분만한것을 보아도정부의 이에대한결심을 짐작할수가 잇다고한다

◇천도교천일긔념식

天日記念에 三千名會集

합동후 처음으로 대성황

天道敎의年中行事

五일 시내경운동(慶雲洞)천도교회에서는 신구당파 합동이후 처음맛는 천일긔념식(天日記念式)을 거행하얏다 참집한 사람들은 전조선각지와 해외로부터온 동교교도三천여명이나되어서 근래에 보기드믄 성대한집회이엇다 동일오전 十一시오상준(吳尙俊)씨 집례、리돈화(李敦化)씨설교로 식을 마치고 오후에는 동교회당광장에서 여흥、가장행렬등 축하식이 잇섯다

轢死三人은 一家族으로判明

죽은 원인은 자살인듯하다

倭館隊道怪屍續報

【대구】 지난三일경부선 왜관(倭館)제一턴넬에서 젊은남녀와 어린사내아이의 무참히갈려죽은시체를 발견하얏슴은 긔보와 한바어니와 그들의시체를 왜관서에서 검시한결과 칠곡군인동면(漆谷郡仁同面)리영락(三四)과 그의처 장분선(張分先)(三一)

明日이淸明

北部엔降雪까지

低下된今日氣溫

명 六일은 청명(淸明)이니 일출의 시각은 오전 五시三十一분

우수(雨水)、경칩(驚蟄)지나고 춘분을마즌지도 벌서보름。맑고밝은청명의 봄人날은 사람의발人길을 교외로 산과들로 잇글며로잇슬것이다

그러고 이날이 바로청명이자 한식(寒食)날이니 행락의 씨즌이자 한겨울동안 돌보지못하든 선조의묘를 차저 성묘하는날이다

청명을 이틀압둔 작四일저녁부터 나리는비人뒤를 니어 금五일새벽에는 북도지방에 약간의눈까지석겨고、긔온이 차지며 봄人바람으로는 거츠른광풍이불어 잇는데 이에대하야 경성측후소에서는 이러케말한다。

작일(四일)산동반도(山東半島)에잇는 저긔압이 조선의 중부를 횡단하야 금일아츰에 일본해로 버서나라갓다。이때문에 거의 전조선에비가 나리엇스며 그중에도 북부조선에는 눈이나리엇슬것이다。

이와반대로 북부중국대륙에 잇든고긔압은 그뒤를 니어 조선에들어와 펼처잇서서 북풍이강하게불고 긔온은 작일보다 五도가량떨어저잇다。명일은 바람도자고 날도 본격적으로 봄人날로 회복될것이다。

해산 하기로된 조선보병대(朝鮮步兵隊)의 해산날 四月十일도 아프로 며칠이안남어 축대하고 파수보는 보초병(步哨兵)의 다리힘도 다싸진듯이 희친거린다 四일은 일은아츰부터 즙긔(什器)가튼 물품반출에 자동차 마차 넓은 三모도 좁은듯이 출입이 련락부절하얏다 이러케 물품전부를 군사령부로실어내고 二백十여명의 장교사졸은 해산일까지 림시로 류숙하게되엇다

朴衡采氏別世

五일오전에

시내 견지동에잇는 시천교회(侍天敎會)도사 고원암박형채(道師故圓庵朴衡采)씨는五일오전六시四十분에 견지동 八十번지 자택에서 별세(別世)하엿는바 동교회에서는 오는七일오전 十一시에 교회장(敎會葬)으로 장례(葬禮)를 거행하기로 하고 아래와가티 장례위원을 선거하엿다하며 동씨는 본래소년시대부터 동학군으로 동학난시대에도 전봉준(全奉準)등과가티 활약을하엿스며 현재에는 시천교도사와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설립자를 겸하야 잇섯다는대 동교회주최 개교긔념축하강연여흥은중지하얏다한다

醴泉路邊에 老人餓死屍

병든몸 먹지못해죽은 여폐

◇幼子만仰天痛哭

詐欺賭博中 大金을强奪

【개성】 황해도 연백군도촌면 무구리(延白郡道村面無仇里)사는홍대표(洪大杓)(三六)외五인은 동군호동면추궁리(湖東面秋弓里)문양호(文養浩)(三二)라는 사람이 토지를팔아가지고 수천원 현금을가지고 잇는것을 탐지하고 편취하야먹기로 서로공모한후 지난三十일 개성부원정(開城府元町)六백八十七번지 손석긔(孫奭基)방에서 현금一천원을 걸고 도박을하자고 권유하야 시작을하는중에 별안간대장이되는바람에 전긔홍대표는 문양호의 주머니로부터 현금八백四十원을 폭력으로 강탈하야 가지고 도주하얏든중 지난二十一일 소관개성서형사의손에 범인파및련루자五인이전부체포되엇다

昌寧에大火 卄五棟全燒

교통불편한 가복동에 큰불

廢墟엔哭聲만振動

【창녕】 경남창녕군 성산면가복리(慶南昌寧郡城山面加福里)에서는 지난二十九일 오전十시경에 동리 한복판 성팔영(成八永)씨집부근에서 발화하야 마참 맹렬한 풍세로 불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지어 가가二十여동과 곡물二백여석 가구등을 전소 시키고 그날 오후六시경에야 간신히 진화되엇는데 손해액은 三천五백원에 달한다하며 원인은 실화인듯하다한다

원래 그곳은 교통도 편할뿐 아니라 유명한기픈골작에 조고만한 가난한 부락으로 되엇스며 린근에 잇다는 동리도 二十여리를 격하여잇는더러 불이난 그날 맛참동리 남자라고는 대개三十여리나되는 경북청도 각시장(慶北淸道角市場)에가 버리고 남은여자들이 진화에진력하얏스나 수포에 도라갓섯다 한다

별안간화재를 당한 남녀백여주민은 낫을마조대고 통곡하는소래가 끈치안흐며 이피해자들은 의지할곳이 업서서 남의진마구간과 돌텁이새에다가 울막을매고 지나는 형편으로 참아볼수가업다한다

專門校合格者

◇四月三日發表分

普成專門學校

(受驗番號順)

◇法科(六十一名) 李鍾洪、朴容鎭、鄭宅基、[illegible]、鄭泰根、[illegible]、朴勝吉、吳秉[illegible]、義浩、蔡秉斗、[illegible]、書、金處源、[illegible]、金達楨、鄭邦[illegible]、淳吉、卓在[illegible]、斗、崔禹鉉、[illegible]、朴觀武、李用[illegible]、性仁、金相楨、[illegible]、熙、林昌浩、[illegible]、鄭啓煥、金淳德、李哲熙、金錫圓、張銘璣、李鼎洛、由在國、金基成、韓德愚、李鳳洙、任昊淳、李鍾喆、金周喆、[illegible]

梨花女子專門

(無順)

李寶先(金同悅)、閔定基、權五年、裵福[illegible]、申泰玩、[illegible]壽吉(進明)

◇文科豫科別科 黃大全(貞信)

◇文科 本科 推薦生 金蓮香(大邱高女)、一般試驗生李淳福(明大豫科)

◇音樂科【推薦生】閔元得(樓氏女高)、李喆卿(培花)【受驗生】金錫姬(大邱高女)、鄭次姬(大邱高女)、金永福(梨花)、具順福(好壽敦)、李再淳(京女高)、韓寶佩(正義)、鄭順愛(淑明)、安順伊(梨花)、安熙英(培花)、朴寶培(培花)、高貞煜(培花)、徐厚德(培花)、鄭珍磐(平女高)、金景容(元山高女)、洪玉姬(梨花)、金英愛(永生女高)、李珠璪(元山高女)

【豫科別科】金順任(貞信)

◇家事科 金福均(培花)、李珏[illegible]、鄭(培花)、林順禮(梨花)、崔[illegible]濟(梨花)、崔今珠(梨花)、權甲淳(淑明)、韓永順(好壽敦)、郭敬愛(正義)、金甲喜(淑明)

【豫科本科】鄭玉鉉(正義)、權玉順(好壽敦)、金季姬(淑明)、朴貞淑(正義)、俞順(龍谷)、林內順(淑明)、李玉筍(淑明)、林寶得(培花)、文章姬(培花)、金順華(梨花)、崔淑子(梨花)、崔炅玩(平女高)、金卓淑(平女高)、蔡仁淑(平女高)、李桂德(永生女高)、金壽昌(培花)、金會南(永生女高)、朴次男(進明)、李春子(進明)、李周熙(平女高)、金性在(京女高)、成海龍(元山高女)、高賢朋(同德)、[illegible]一姬(進明)

【家事別科】劉阿只(貞信)

【家事本科第一部年】崔俊[illegible](第一高女)

運動競技

選拔中等野球

準準決勝戰經過

中京3神港0 【大阪四日發電】大每主催、第八回選拔中等野球大會第四日의 準決勝戰의 第一째임인 神港商業對 中京商業戰은 四日午後三時 中京先攻으로開始한바 中京一回에 二點 四回에一點을엇고 神港은 一點엇지못하야 三對零으로 中京勝하다

第二回戰經過【大阪四日發電】第四日의第二回戰외남어지 二째임의經過는다음과갓다

北豫中學15――3橫濱商工
松山商業5 A――2平安中學

陸上競技聯盟 創立을保留키로

朝鮮體協에서 分離하야 새로 創立하랴든 全朝鮮陸上競技聯盟은 그後 昨年度日本陸上競技에入賞된 選手사이에 準備中이든바여러가지事情으로因하야 다음의聲明書를發表하고當分保留하기로되엇다

◇聲明書 이번我等十人이 半島陸上競技의向上發展을爲하야 全朝鮮陸上競技聯盟을 設立코저 聲明書를發表하야 그實現에關하야는 朝鮮體協과 折衝하얏다 그런데體協에서는 그趣旨에贊成하야 組織에對하야 再三考慮하얏스나 現在의狀態로는 經濟關係上 實現이不能할것을알고 協會와妥協하야 當分間保留하기로하엿다 三月廿六日

朝鮮陸上競技聯盟發起人一同

그날그날

日曆 四月六日(月曜) 二月十九日(辛卯) 日出前六、二四 日沒後六、五九 月出前一、三三 月入後七、五九

潮水(仁川前) 七、二〇 一九、三〇 (釜山) [illegible] (麗水) [illegible]

天候 六日 晴一時曇

京城 四日 最高 最低 一六、九

消息 ▲韓泳誠(本社員) 平壤支局赴任次明六日午後十一時京城驛發車로平壤에

集會 ▲京城日日讓渡披露宴 前社長有馬純吉氏, 朝鮮日日社長鮫島宗也氏는 四日 午後六時半 京城新聞懇話會員 및 其他言論界代表者를 朝鮮호텔로 招待하고 讓渡披露의宴을 베플엇다

라디오

【六日月曜日】 午前十時半氣象▲十時四五分 各地天氣實況▲十一時[illegible]種目日用品時勢▲正午時報▲[illegible]ニユース▲午後○時二十分라디오體操▲一時家庭講座▲二時一五分[illegible]趣味講座▲三時四五分[illegible]官廳公示事項▲五時四十分라디오體操▲六時半最新自然科學講座▲七時[illegible]官廳公示事項▲七時二五分記念[illegible]▲八時放送舞臺劇▲九時半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時報▲九時四五分西道雜歌金月中仙張香蘭

訃告

侍天敎道師圓菴朴衡采先生今月五日午前六時半還元玆以訃告

一、永訣式 四月七日午前十時
一、式場 堅志洞侍天敎堂
一、發靷 四月七日午前十一時
一、葬地 弘濟院火葬場 (花環謝絶)

濟世主降生百八年四月五日

侍天敎道師故圓菴朴衡采先生敎會葬儀委員會

讀書週間 第十四週

奈良正路氏著「法律學의根本問題」(評)

貫洞學人

從來의모든科學——社會科學——이 그러함과가티 法律學의 領域에 잇어서도 그것은 支配하는 階級의 利益을 擁護한것이엇다 日常우리가 法律或은法律關係라는것이 오직 形而上學的 形式論理學的 社會學的 心理學的 으로만 取扱되어 法의 發生——變更——消滅에 關한 本質的 關係가 無視되엇슬뿐아니라 언제나 法의 適應形態는 『이 時代의 一方的 利害에 滿足을 주는』特殊性우에만 存在하는것이엇다 『이러한 目的의 미테서 至今까지의 法律學이 極히 精緻한 論理와 犀利한 硏究와 豐富한 것이엇다 그러나 그 精緻와 犀利와 深高와 豐富를 가진 法律學에도 이제 큰動搖가 起되어와잇다』 이 動搖는 勿論 外部의 情勢가 動搖케되어와잇슴에 起因하는것이다 近來의 未曾有한 經濟——資本主義的 生產方法 自體가 한 桎梏化한 ……속에서 새로운 法律의 『봄오지즘』으로 轉現되고 맛엇다 이것을 奈良氏는 『푸로레타리아法學』이라고 命名한다

그러하야 『從來의부르조아的인 法律과 對峙하는點에 푸로레타리아 法學의 새로운 任務가 잇는것이며 새로운 經濟學的인 觀點과 새로운 法律的 論理와 展開와에 依하야 낡은 法律學을 批判하고 그것을 克服하는 點에 푸로레타리아法學의 새로운 任務가 잇다』

이 意味에서 本書는 勿論 푸로레타리아法學의 根本問題를 取扱한것이다 ……

×

第二章『法과 經濟(社會)組織』에잇서著者는 法의 發生, 變革은 經濟(社會)組織과의 關係를 具體的으로 究明하야 『法은 經濟組織과 特히 法律學과 經濟學과의 關係를 取扱하엿다 即 法律學의 補助學이라 하는 것이 法律學이 經濟學이 基礎로 되어 잇는것을 明하며 經濟學의 補助學——그러한 唯物論에 立脚한 法律學이 『맑스主義의 經濟學』이라고 하는 것과 法律學의 商品經濟와 資本主義社會의 經濟的 基礎가 아닌것이 없다』는 것을 指摘論述하얏다

×

第三章『國家에對한硏究의 重要性』에잇서 著者는 法律은 國家機關에잇서서만 作成된다는것을 말하며 따라『國家란』 어떠한것인가 하는點을 明確히하는 것이 非常히重要하다』는데서 國家에對한 硏究의 重要性을 强調하며 出發한다

大體 國家란 부르조아法學者들이 말하는바와가티 融和的, 超階級的 存在가아니고 그는 도리혀 現實的, 階級的存在以外의 아모것도 아닌것을 이나라의 所謂 權威的 一流國法學者의 學說을 引來하면서 그 『不偏의 擬制性』을 ……

×

第四章『法律規範과 道德規範』에잇서 著者는 法律과 道德과의 關係의 問題를 如何히 認識하여야할것인가 하는 問題를 提起하며 따라 그 關係에 잇서 『한 重要한 政治的 意義를 發見한다』는것을 말한다 即 이데올로기로서의 法과 道德과를 混結시키는것은 無意識的이엿든 或은 意識的이엿든 階級的인 社會的 根據우에서 그 社會의 經濟的 優越階級의 이데올로기를 强調한다 ……

×

第五章『經濟事情變更의 原則에 對하야』라는 題下에잇서 著者는 民法의 原則『信義誠實의 原則』『公序良俗의 原則』『事物의 合理性』等等의 ……를 問題삼는다 ……

×

以上으로서 넘우도 不充分하나마 本書의 內容의 羅列的 所見을 記하게되엇다 本書의 內容에 잇서 多少의 批判할 必要가 잇다고 생각되는 點이 업지는 아니하나——그러나 다시 그것을 말하려한다——(이點에 對하야서는 달은 機會에 ……) 부르조아法學者의 精緻한 論理와 犀利한 硏究와에 依하야 …… 著者의 적지안은 努力에 만은 敬意를 表하는바이다. (一九三一·三·二五)

「에쓰」語書籍紹介

싸멘호프의 一生 (Vivo de Zamenhof)

金岸曙

이冊은 말할것도업시 에쓰페란토로 에쓰페란티쓰토들은 엇던한사람을 勿論하고 한번보지아니할수업는 良書라고 생각합니다. 에쓰페란토語創案者 루도비코·라싸로 싸멘호프博士의 評傳이외다. 엇던意味로는 한個의 思想史라할만한것이외다. 이러한 偉人이나 天才이니하는이들의 傳記한그 內容이 한個人의 生活記錄에 지내지아니하는것만치 乾燥無味하야 一般的으로 讀者의 興味를 끌기어렵은일이외다. 著者의 經驗으로보면 이 『싸멘호프의 一生』한卷만은 조금도 그러치아니하야 조금도 感激업시는 읽을수업는 우름답은 敍事詩라는 感을 禁할수가 업섯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에쓰페란토語文壇의 大家로이미 노픈定評이잇는 『에드몬드·프리바』(Edmond Privat) 博士의 詩的 筆致에다가 이天才의 思想에 對한 充分한 理解를 잘調和하엿기 때문이외다. 이 點에서 에쓰페란티쓰토들은 勿論이요, 에쓰페란토語文章이 엇더한것인가 알아보라는이들에게 반듯이 一讀을 勸하고십습니다. 著者는 『싸멘호프』의 思想보다도 에쓰페란토語文章硏究에 到處에 피, 눈물, 한숨, 낡카로운 ……

엇더한 洗鍊된 自然語로도 이冊과가튼 表現의 妙는 가질수업슬것이외다. 쌀마쌀마한 文句가 아니면 動詞도 하나쓰지아니하고 思想과 感情을 單語한마듸에 다가 담아 노흔것에는 果然 大家의 表現能에 놀래지아니할수가 업는것이외다. 다른 傳記와가티 이天才의 生活과 思想에 對한 記錄이 연마는 조금도 乾燥無味하다는 感을 주지안는것은 가장 偉大한 精神과 가장 쓸쓸한 ……

그러하야 思想과 感情을 숨김업시 交換할수잇는 言語가아니고는 이 仇敵視하는것을 멀리할수가업다는 생각을 가지게된것이외다 그러하야 中學時代부터 엿스니, 天才의 早熟을 볼수가 잇는것이외다. 그러고 醫科大學을 마초엇슬때에는 비로소 에쓰페란토와는 다른 것입망정, 草稿가 完成되엿스나 『實現不可能』을 固執하면서 사랑하는 子息의 『넘우도 夢想的』임을 걱정하든 아바지는 그것을 불살라버렷든것이외다.

그러다가 一八八七年, 그가 結婚한뒤에 丈人의 補助를 어더 『에쓰페란토博士』라는 匿名으로 『第一讀本』을 出版햇든것이외다 이것이 『에쓰페란토』가 키움으로 이 世界에 나타난것이외다 이 方面에 有意한 同志들의 讚揚을 바다 한해두해, 十年二十年 거듭되는 동안에 기푼뿌리를 가지게된것이 엇습니다 一九〇五年에 프랑스에서 第一回世界 에쓰페란티쓰토大會가 열렷슬때에는 이天才自身도 自己의 創案한 말이 엿마는 意外의 效果에 놀래지아니할수가 업섯든것이외다.

그러나 悲運은 갓갑어와습니다 뜻밧게 니러난 大戰亂은 恒常 人類同胞를 夢想하며 世界平和를 사랑하는 싸멘호프의 가슴을 餘地업시 뚜드려부쉬고 만 것이외다 그러나 그의 根本思想인 人類一員主義 또는 人類愛主義를 忘却하고는 이天才를 생각할수가 업는일이외다 이것을 한마듸로 주려말하면 全人類에 對한 同胞와 正義感이외다 그가 에쓰페란토語를 創案한것도 이思想의 한部分에 지나지아니합니다 다시말하면 에쓰페란토로써 各國이 ……

그러가에 그의根本思想인 人類一員主義(호마라니쓰모)는가 人類에 그의 言語와 가튼宗敎만이 人類에게 平和를 줄수잇다는 意味에서 에쓰페란토는 그에게는 言語도 되고 宗敎도된다고 볼수잇는것이외다 달리말하면 『에쓰페란티쓰모』는 그의 主張한『호마라니쓰모』는 ……

如何間 晩年의 이天才의말은 다시업시 孤寂하얏든것을 評傳作者에게서 들을때 筆者는 凡人은 언제든지 가튼運命을 求할수가잇서도 天才는 혼자뛰어난山峯과가타서 아모리해도 가는동무의理解를 求할수가 업다는생각을 禁할수가 업섯습니다 기듭말하거니와 이評傳은 感激으로始作되어 感激으로 끗난것만치 또는 그文章의表現이 妖婦가튼 魔力을가진것만치 아름답은 한篇의敍事詩라는 생각을 언제든지 禁할수 업는好著외다

發行所 Brita Esperanto Asocio

17 Hart London, W. C. I.

四六版, 二〇四頁。定價壹圓五十錢 (丸善이나 日本에쓰페란토學會에서 살수잇습니다)

朝鮮古典解題 (十四)

李淸潭重煥의「擇里誌」

延專教授 鄭寅普

擇里誌上下一冊은 李淸潭重煥의 著이다 或八域志라고하고 或博綜志라고도한다 淸潭은 肅宗庚午(一六九〇)年이오 卒年은아즉考見치못하얏스나 書中에『蕩平論』以後 朝象、野習의 壞敗함이 더욱甚함을 指斥하고이어서 銓郞制度廢止한말이잇슴을보아 英祖庚申後얼마동안 在世하얏던것은미루어알수잇다 淸潭의父는震休오, 景淵의三孫孫이니 ……

擇里誌가 傳承하야왓슴은무론이다 이책은 士友間에 傳寫─자못洛莫하지아니하얏고 이제어대서刊行한本가지잇스나 대개書中의 間見한 『살만한곳』이야기가 書名의擇里와 서로엉리고 山形水勢를 밝한것이 風水說을 얼마쯤섞은아秘한듯함으로 書名대로 一種의 住居에對한指示처럼안다 아니다 淸潭의著書한本懷여긔잇는것이아니다 中國學者들이 만히 ……

風俗이 이제엇은差誤─업다고하고 鄭道元水經注의帶敍한古蹟이 지금古中國硏究에이거의다시업슬寶典이라하나 淸潭의擇里誌는 傳所에比하야 博綜한이지나고 水經注에較하야 翔實할것이낫다 이제멀리라도 朝鮮의地理書로서 古今의 馮·麟과長을較하지안는다하더라도 朝鮮의地理書로서 古今의 이에지날良書─업슴은事實이니 金古山의大東地志의詳核과幷垂할만한데 古山의志는數學的이오 淸潭의書는哲學的이며 古山의志는靜止오區分이오 淸潭의書는活現이오融貫이다 八方의 風俗이 그地域과故實에依하야 釀成한것과 物產、道路의交輸되는大勢와 關防要害의 注限할곳과 經島、孤嶼의形勝까지에 어느것에범연한곳이업고 眼光이 집히쏘임을말하 往古의成敗와 眞跡을 海山寂寞한속에서 그 의이어루만진것도만흐니 하나 珍爲碧波亭의 念……

平된海流를叙述하다가 壬辰難 李如松의平壤捷이 실상李忠武公의功績임을 推論하야갈오대 『그때沈惟敬이封貢으로써 倭軍을속이어平壤에멈울게하얏다하나 平壤에멈은것은뒤조차오는 水軍을기다려合勢코자한것임으로 자못信約을직히는듯이보이엇스나 이도로속임이라 李如松이 두편이서로속이는틈을타 이를擊破한것이니 海上의大捷이업섯던들 敵의水陸軍이合하얏슬것이오 合하고보면 隔閡한 封貢의說로써 어씨敵의縱兵함을막을수잇섯스랴」하얏다 이 만하야도名著다 이러한名著의 眞價를알아주지를못하야 十勝을찾고 三災를怯내는一流의 …… 精必携로굴러다니게된것이 이어지一書의埋沒됨을哀惜함에 그칠것이랴 그러나淸潭의本懷로 말하면 擇里그대로만봄이陽秕 播입은다시말할것도업거니와이 보다나아가 地理書로서 良著라……

하는것外지도깁흔知音은아니다 淸潭은 그時代에對한 感慨念이 가장切實하던이라 下篇卜居總論에 地理、生利、人心、山水를分說하며 人心一段은 朝鮮近古의 黨禍의始末로써起結하엿고 十大夫를主로하야 살만한곳을고는 그可憐狀을슴諷한것이며 ……

諸士大夫、皆本國人苗裔耳、我國處中國之外、不為擊於禹貢錫姓之時即一東夷也」라한것이 거즘으로自國을 卑視하는것가트나 실상自族尊重의精神을일코 치아니한假面으로 互矜、共推하는 그可憐狀을슴諷한것이며 ……「東亦不可居、西亦不可居、南亦不可居、北亦不可居、如此則將無地、無地則無東西南北、無東西南北則便一混圖太極圖也、如此則無士大夫、無農工賈、亦無可居處矣、此謂非地之地、於是乎作士大夫可居處」라하엿다 이는다 곳은말이아니라 偏私한論見을 깨트리재쓰아니란뒤라야 비로소自心의 本地를 차진뒤라야 비로소사람의 本地를차질것이며 ……擇里의影을假하야 本心喚起의 實로써歸宿을삼는 그 布置 미憺淡한意匠이어니와 八域의 實相을材料삼아 隱然히毀亡의 警動과瞻顧心의觸撥을兩行코자 는가 ……

書齋風景 (第二景)

◇崔東奎氏書齋

◇ 中東學校長 崔奎東氏의 書齋는어떤지 다음週間에는 쏙보여주십시요(市內KSK)

◇ 崔校長의 書齋는 어느때한번 火災를 맛나 지금은겨우千餘卷의 書籍밧게 남지안엇다고 합니다

또 日間 病患으로 書齋는閑暇한 歲月을보낸답니다

◇ 『崔代數』라하면 學生界에서 ……

……

書庫獵奇

大同江人

書籍保護

米國『클레브렌드』어느 圖書館에서는 兒童들이 冊을함부로 다루지안토록『書籍의身勢打令』이라할만한것을 冊表紙에 부처 노핫스니 그이야기가 대단히자 미잇슬뿐아니라 또한書籍保護로 效果가 만타고합니다.

『도련님 더렵은손으로 부대 나(冊自身이외다)를 만지지말아줍시요 다른 도련님이 나를차즐때에 옷이 더럽으면 얼마나부끄럽겟습니까그려고 ……

新語解說

▲넌센스 英語의 Nonsense로 無意味라는 말이다 아모意義도 價値도 업는것이라도와 ……

▲資本主義『第三期』 資本主義『第三期』는 全資本主義時期를 區劃해서 하는말이아니라 戰後資本主義 即沒落過程에잇는資本主義를 三期로 나누워가지고 現階段을 일커른말인데 ……

▲이트 이것은 米國『에려노아 그린』의 創作 『It』를 主演하야 映畫化한以後로 一般化된『모던』語이다 ……